

# 류현진, MLB '1000이닝-1000K' 달성 시점은?

부활을 노리고 있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5, 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통산 1000이닝-1000탈삼진을 달성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달성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류현진, 사진=mlb.com

7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류현진은 지난해까지 8시즌 동안 169경기(168선발)에서 976 1/3이닝을 던지며, 73승 45패와 평균자책점 3.20을 기록했다. 탈삼진은 880개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에는 31경기에서 169이닝을 던지며 개인 통산 3번째로 규정 이닝을 채웠으나 후반기 부진한 모습을 보여 평균자책점 4.37을 기록하는데 머물렀다.

부활을 노리고 있는 류현진은 우선 이번 시즌 초반 메이저리그 통산 1000이닝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5 2/3이닝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5경기 정도면 가능하

다. 단 메이저리그 직장폐쇄 여파로 개막이 1주일 미뤄졌기 때문에 4월 내 달성은 어렵고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00탈삼진은 시즌 막바지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880탈삼진으로 1000탈삼진까지 120개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류현진은 9월 초에 120탈삼진을 돌파

했다. 이를 놓고 보면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1000탈삼진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

물론 이런 기록 특히, 이번 시즌 내 1000탈삼진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류현진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며 꾸준히 마운드에 오를 때 달성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1000이닝과 1000탈삼진 기록을 세운 선수는 많다. 하지만 한국인 선수로는 오직 박찬호만이 달성했다.

# 우승 노렸던 레이커스, 플레이인 진출도 못했다

LA 레이커스가 결국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LA 레이커스는 5일 피닉스 풋프린트 센터에서 열린 2021-2022 NBA 정규시즌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110-121로 패(34승 45패)하며 서부컨퍼런스 11위에 그쳐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이 좌절됐다.

농구전문매체 '투키'에 따르면 레이커스는 지난 시즌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전력 보강에 올인했다.

그 결과 르브론 제임스-앤저니 데이비스-러셀 웨스트브룩으로 이어지는 빅3가 구성됐고, 카멜로 앤서니와 드와이트 하워드 등 베테랑들도 우승을 위해 물려들었다. 그 결과 레이커스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한 팀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측을 빗나갔다. 레이커스는 시즌 초반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고, 5할 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레이커스는 플레이인에도 나가지 못하고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레이커스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꼽힌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생했던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에도 자주 자리를 비웠고 르브론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 잦았다.

기대했던 켈트릭 넌은 무릎 부상으로 1경기도 나서지 못한 채 레이커스에서의 첫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노장 일색의 라인업으로 수비와 에너지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몰락을 부추겼다.

일찍 비시즌을 맞은 레이커스는 팍팍한 셀러리캡 사정으로 새 판 자기에 돌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 시즌에는 어떤 팀으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 옛 LA 레이커스 홈경기장 이름 '기아 포럼'으로 변경

미국프로농구(NBA)팀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의 홈경기장이었던 '더 포럼'이 '기아 포럼'으로 이름을 바꿨다.



▲ 사진=kiamedia.com

기아 미국판매법인(KA)은 4일 "캘리포니아주 랜드마크 중 하나인 '더 포럼'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곳의 이름을 기아 포럼으로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967년 개장해 1999년까지 LA 레이커스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LA 킹스가 홈경기장으로 사용했다. NBA와 NHL 올스타전, 1984년 LA 올림픽 농구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도 이곳에서 열렸다. 현재는 미국 팝스타들의 라이브 콘서트와 엔터테인먼트 행사, 시상식 등을 비롯해 복싱·이종격투기 등의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KA는 "기아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장의 일부가 됐다"면서 "엔터테인먼트와 자동차의 결합을 통해 이 행사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A는 이번 계약에 따라 '기아 포럼' 실내의 공간에 홍보 전광판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EV6 등 자사의 전기차 모델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애호가와 음악 팬들을 위한 전용 라운지인 '기아 클럽'도 들어설 예정이다

기아 포럼의 소유주는 프로농구팀 LA 클리퍼스의 구단주이자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스티브 발머이다. 클리퍼스는 현재 LA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옛 스테이플스센터)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는 현재 기아 포럼 인근에 건설 중인 인튜이트 돐을 새로운 홈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 Home Remodeling